민주당 후보 경선 치열…무소속 후보 돌풍 준비

강성휘

김종식

여인두

박홍률

최홍림

목포시장

전직 도의원-현직 시장 민주 경선
전·현직 시장 리턴매치 될지 관심

목포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 성사와 지역구에서 탄탄한 정치력을 쌓아온 전직 도의원과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직 시장과의 경선 경쟁이다. 현직 시장과 도의원의 민주당 경선 경쟁이 전편이라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은 속편이다.

목포시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경선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김종식 목포시장 간 대결 구도로 정해진 상태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은 '최연소 목포시의원' 출신으로 3선의 목포시의원 경력과 재선의 전남도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비서관 등을 지낸 정치력을 바탕으로 목포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 전 도의원은 자신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도시 못지 않은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미래형 강소도시 목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수산·관광업을 목포의 3대 전략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게 그의 비전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잡음 등을 딛고 경선 경쟁에 이름을 올린 만큼 경선 뿐 아니라 본선까지 직행, 지역민들의 선택을 직접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3선의 완도군수를 지낸데 이어 목포시장에 당선되는 등 전남지역 처음으로 두 곳의 자치단체장을 지낸 풍부한 경륜을 갖춘 만큼 목포시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평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굳힌 상태로, 강 전 도의원과 김 시장 간 경쟁의 승자와 본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은 4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김 시장과의 접전 끝에 292표 차로 패했다. 여인두 정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도 출사표를 던졌고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도 무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나선 상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강병국

김대현

이정운

김팔봉

김산

최길권

무안군수

현군수 민주 컷오프에 무소속 출마
서삼석 국회의원 영향력에 주목

김산 무안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김 군수의 무소속 출마에 따라 무안을 지역구로 오랜 의정활동 경력을 통한 서삼석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김산 군수는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것으로 발표된 뒤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공천학살'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산 군수는 제 5, 6대 무안군의원과 제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고 제7대 무안군수로 4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왔다.

김 군수에 맞설 민주당 경선 후보로는 강병국 무안군의회 의원,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원 등이다. 3파전으로 펼쳐질 경선 결과를 통해 김산 군수와 맞붙을 민주당 후보가 정해질 예정이다.

강병국 군의원은 30대의 젊은 정치를 내세우며 공천 경쟁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 활동 경력도 젊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강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대현 무안군의장은 초선임에도 역대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군수 도전에 나섰다. 정치 입문 전부터 청년회, 사회단체,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꾸준히 호흡하면서 지역사회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이정운 군의원은 20년 넘도록 무안군청에서 쌓은 행정경험과 군의원을 통한 정치력을 무안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김팔봉 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유민주당 소속 후보로 군수 선거에 뛰어들었고 최길권 후보는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냈다.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섰선 최옥수 무안군상공인회장은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돼 출마 여부가 미지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진군수

강진군수 선거는 이승옥 현 군수와 강진원 전 군수, 서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민주당 당내 경선을 펼친다.

재선 도전에 나선 이승옥 군수는 중단 없는 강진 발전을 위해 위대한 강진의 새시대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진 강진원 전 군수도 창조적 능력과 청렴이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채원 부의장도 강진에 유능한 정치가가 필요하다며 출마를 선언하며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20여 년의 지방정치 경험으로 강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군수는 "'동순천 서강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50년 강진읍의 모습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고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농식품 산업을 육성 ▲체류형 웰니스 관광 거점 도시를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로 시작,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국장, 여수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4년 전 이 군수에서 석패한 강진원 전 군수는 "5년 내 '전국 탑 5' 안에 드는 강진 쌀·한우 명품화를 실현하고 '쌀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의 고소득을 보장하겠다"면서 "한우 역시 품종개량 속도 향상 및 번식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의 예측, 정밀 사양관리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청년 및 가업2세 창업지원실 운영 ▲싱글여성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민복지·보건소 2개과 확대 및 문화관광과 4급 실로 승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 전 군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청 혁신도시 지원단장 , 장흥군 부군수를 지냈으며, 제42~43대 강진군수 역임,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강진원

서채원

이승옥

이승옥·강진원·서채원 민주 경선
전·현 군수에 지방의원 출신 3파전

서 정책위 부의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마을 조성하고, 케어안심주택, 낙상예방을 위한 집수리 사업, 지역 돌봄 시범마을 조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하고 장례지원금 제정하겠다"며 "청소년 복지증진: 돌봄서비스 방과후수업 및 초등학생 학교급식 지원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문화 가정 정책 및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출산후 3년간 1인 최대 1000만원 지원, 드론농업 활성화 및 4차산업 AI기반 스마트팜 구축, 첨단농업 육성 지원, 소규모농가 지원 확대, 종합가공센터 설립, 화훼농가 공동창고 시설물 확충, 마을 농업폐기물 집하장 설치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국무총리 자문위원, 호남대 겸임교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지방의회 5선) 등을 지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고흥군수

고흥군수 선거에는 현재 무소속인 송귀근(64) 현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공영민(68)·박진권(50) 예비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을 통해 최종 주자가 누구로 결정될지와 무소속 송 군수의 돌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군수는 19일 "민선7기 추진중인 대규모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구상중인 새로운 사업등을 실천하기 위해 군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고흥예술랜드 관광단지를 조기 착공하고, 8500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민선8기 4년간 고흥군 예산 5조원 시대를 달성하여 고흥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광주광역시 행정부사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등을 지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영민 예비후보와 박진권 예비후보가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일찌감치 2명의 후보로 압축한 상황이어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지방선거에 이은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공영민 예비후보는 "현실에 맞게 고흥을 설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맞춤형 전문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민들과 열린마음으로 소통하고 대화하여 진정한 군민통합을 이루어 서로 편을 나누지 않는 군민간 갈등이 없는 고흥, 산업과 생활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변화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고흥, 가고싶은 고흥을 만들겠다"덧붙였다. 지난 1985년 국가직 7급 공무원 합격 후 23년간을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면서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가장 닮고 시픈 상사'에 선정되어 일 능력에 리더십까지 인정받았다.

공영민

박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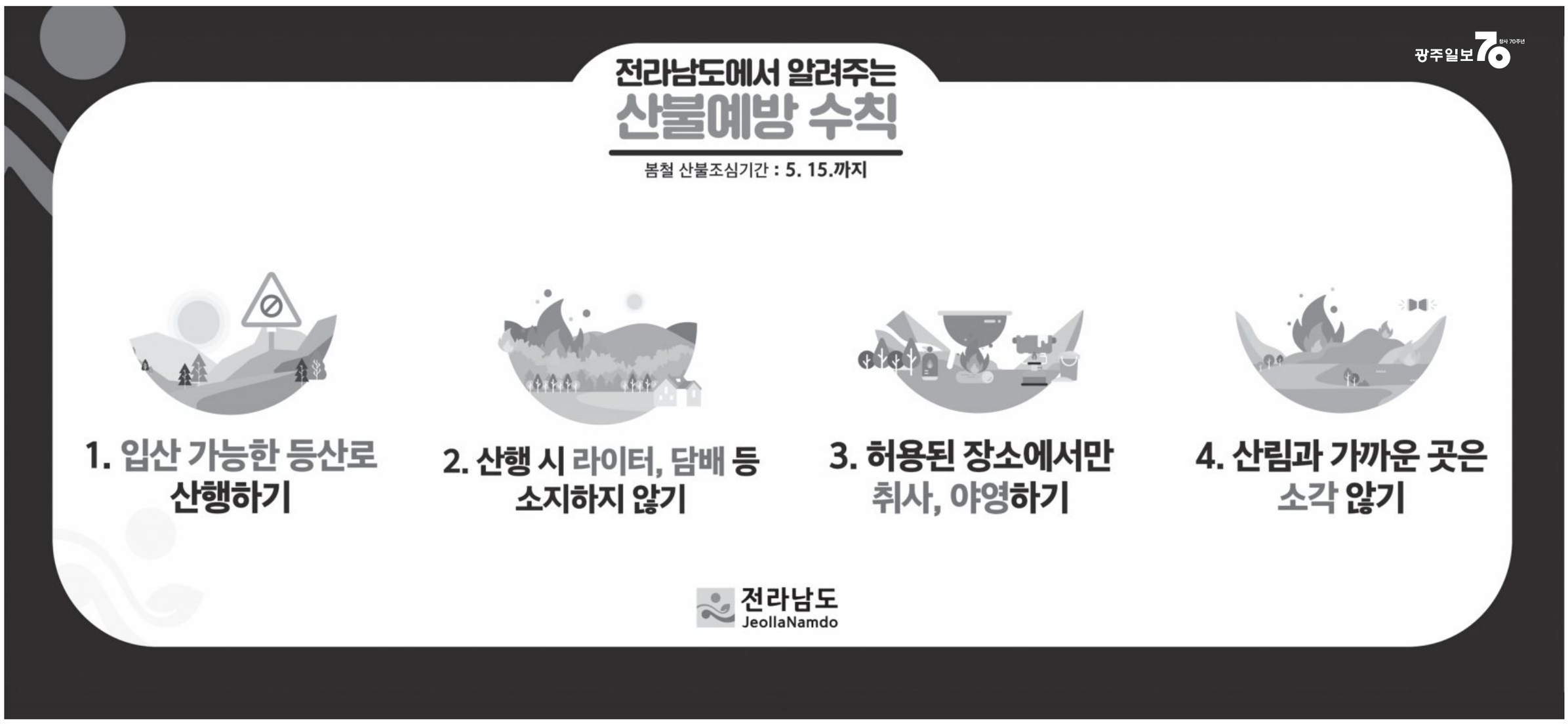
송귀근

무소속 현 군수-민주당 경쟁 구도
민주 경선 토박이 vs 관료 출신 경쟁

공약은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개편, 우주항공클러스트 구축,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및 6차산업 융복합화 등이다.

'고흥 토박이'를 자처해 온 박진권 예비후보의 도전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남도의회 의원을 지낸 박 예비후보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흥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잘 사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흥의 변화, 고흥을 바꾸는데 젊은 뚝심이 필요하다"면서 "3대가 살아가는 잘 사는 고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제 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민주당 참좋은지방 정부위원,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I) 41대회장 등을 지냈다.

주요 공약은 우주체험 해상케이블카(녹동 천문과학관~금산 적대봉)유치, 남양면 대곡리에서 신흥리 구간 3km 해수통수로 설치 등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